

진안군, 인구 활력 정책 통했다 현안·군민 안전 해결 ‘탄력’

전월 대비 인구 21명 증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정주여건 개선 기여

진안군은 2025년 8월 14일 기준 인구가 총 24,192명으로 집계되어 지난 7월 말(24,171명) 대비 21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기간 내 인구가 뚜렷하게 늘어난 것으로, 그 배경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은 백운면 행복주택 조성과 부귀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성과이다. 먼저 백운면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조성한 행복주택에 12세대 46명이 전입하면서 전월 대비 28명이 늘었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 그리고 아이를 둔 가족단위 입주가 많아, 백운면의 인구 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유치원 3명, 초등학교 7명이 늘어나면서 교육현장은 물론 마을 공동체에도 새로운 활력이 불어 넣어지고 있다.

부귀면은 지난 8월,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을 통해 도시 학생과 가족을 맞이하면서 인구가 크게 늘었다. 18세대 36명이 전입하면서 7월 말 대비 19명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 6명, 초등학교 17명, 중학생 1명이 증가했고 이는 교육 인프라와 주거 공간을 결합한 맞춤형 사업이 지역 활력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례로 평가된다.

진안군은 청년층과 가족단위 전입세대를 유치할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주거·교육·돌봄·일자리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을 단계적으

로 실행해온 결과, 이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군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인구활력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주여건 개선 △귀촌·귀촌 지원 확대 △농촌 유학 활성화 △주거 복지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여, 단순히 일시적 전입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인구증가는 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온 결실이며, 진안군이 가진 매력과 가능성을 보여 주는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인구정책을 통해 ‘머물고 싶은 진안, 살고 싶은 진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장수군은 지역 현안 해결과 재난 예방 사업에 투입될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불균형이나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 재난 대응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가 특별하게 지원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수군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박희승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속적인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총 3개 사업 15억 원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를 통해 재정 부담으로 속도를 내기 어려웠던 주요 현안 사업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고 군은 확보된 예산을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룰 예정이다.

대상 사업은 △장수중학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 5억 원, △장수 복합문화시설 조성 5억 원, △선창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도로사면 정비 5억 원

등이다. 장수중학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은 학부도 등 군민의 오랜 숙원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해 보행환경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장수 복합문화시설은 2026년 개관을 앞둔 주민 문화·여가 거점 공간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문화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선창1 급경사지 도로사면 정비 사업은 붕괴위험 D등급으로 집중호우와 태풍 시 토사 유출 및 낙석사고 위험이 높아 시급성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이번 정비를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해 예방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게 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박희승 지역구 국회의원과 장수군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실이다”며 “군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군민이 행복한 장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수=고판호 기자



올해도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無) 축제 개최 의지를 다지고 있는 무주군은 20일 무주소방서와 안전 협력 간담회 를 가졌다.

무주군, ‘3무(無) 축제’ 명성 지킨다

무주소방서와 무주반딧불축제 안전 협력 간담회 가져

올해도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無) 축제 개최 의지를 다지고 있는 무주군은 20일 무주소방서와 ‘안전 협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원활한 이송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와 무주소방서 대응예방과 관계자들이 만나 축제 현장 환자 발생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전복형 응급환자 이송 체계(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

지침 및 연락 체계를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21일에는 무주군보건의료원 4층 치매안심센터 배움터에서 간호인력 등 반딧불축제장 의료지원센터 운영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한다.

이 시간에는 일반 환자처치 및 대응요령,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 이송 체계,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사용법, 축제 및 행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환자별 처치법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든다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보고회·공공폐수처리시설 설명회

진안군은 20일 오후 홍산농공단지 다목적복합센터에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최종보고회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설명회’를 열고 지역 산업 인프라 조성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현안사업 추진단, 관계부서 및 기관, 용역 관계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해 사업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최종 보고회에서는 연장농공단지 내 구)원광전자 건물을 리모델링해 임대공장 12개, 스타트업 임대사무실 9개, 공유카페, 창업보육공간, 체력단련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100억원(국비 70억, 도비 9억, 군비 21억)이 투입되며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 설명회에서는 최근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에 대해 설명하며 연장농공단지 총사업비 182억(1단계 사업비 141억), 홍산방향 농공단지 총사업비 291억(1단계 사업비 170억) 규모로 사업비 국가예산반영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음을 알렸다.

특히 2026년 전복형 스마트공장 추진 계획 보고도 함께 진행해 진안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주요 산업 인프라 사업의 청사진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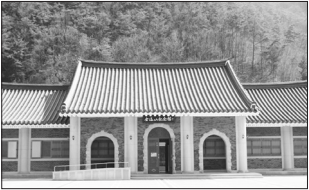
장수군전해산기념관, 현충시설 스탬프 투어 참여

장수군전해산기념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 전쟁기념사업회와 함께 현충시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시대를 초월한 나라사랑 이야기’ 현충시설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가 후원하고 광복절부터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까지 약 3개월간 운영되며 전국 82개 현충시설이 참여한다. 장수군전해산기념관 역시 참여 기관으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현충시설은 조국 독립과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공간이다.

장수군전해산기념관은 항일투쟁 의병장 전해산 장군의 삶을 보존·전시하며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으



로 독립 정신을 계승하는 역할을 해왔다.

스탬프투어 참가자는 인터넷을 통해 스탬프 북을 신청·수령한 뒤 전국 현충시설에 비치된 대한민국 훈장 모양의 스탬프를 직접 찍으며 여정을 이어간다. 스탬프 북에는 독립운동과 국가 수호를 주제로 한 10개 탐방 코스와 각 시설 정보, 스탬프 소개가 수록돼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공습 대비 민방위 대피 훈련 실시

무주군이 20일 무주를 부영아파트 일원에서 ‘2025 을지연습’과 연계한 공습 대비 민방위 대피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훈련은 공습 상황을 가상해 주민들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아파트 인근 주민을 비롯한 공무원, 민방위 대원, 군·소방서·경찰서 등 관계자 2백여 명이 직접 훈련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중앙민방위정보통제센터(행정안전부)에서 발령한 공습경보 사이렌과 함께 대피소(부영아파트 지하 주차장)로 이동한 주민들은 현장에서 민방위 훈련 안내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며,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 교육과 심폐소생술 실습에 동참했다.

이외에도 비상사태 시 소방·경찰 및 구급·복구 차량 등 긴급차량의 비상차로 확보를 위한 ‘길 터주기 훈련’이 무주읍 후간 도로 일부 구간에서 진행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60세 이상 군민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진안군은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해지는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높고, 심한 통증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군민으로 접종일 기준 진안군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사람이다. 1인당 평생 1회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이미 접종을 받았거나 면역억제 상태 등으로 접종이 금지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상포진에 걸린 적이 있는 경우 완치 후 1년이 지나야 접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50~59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도 진안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무료 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

접종을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진안군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일부 기관은 방문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